



보도시점 2024. 5. 11.(토) 배포 2024. 5. 11.(토)

“조국은 언제나 여러분 곁에”...사할린 동포 60명 영주귀국

지난달 27일 16명 이어 11일 동해항 통해 입국...올해 261명 고국품에 안긴다
첫 환영행사 주최 재외동포청 “고국 잘 정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” 약속

-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등으로 사할린에 이주한 동포와 그 자손 등 60명이 꿈에도 그리던 고국 품에 영원히 안겼다.
- 사할린을 출발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여객선을 타고 영주귀국한 이들 동포는 11일 오후 강원도 동해항 국제여객터미널을 통해 입항했다.
- 이번 영주귀국 동포 중 최고령인 황순남(85) 할머니를 비롯한 사할린 동포들은 ‘동토의 땅’ 사할린에서 긴 세월을 돌아 고국땅을 밟았다.
- 2023년 사할린동포 영주귀국 및 정착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사할린동포와 자손은 총 261명으로, 4월 27일 16명의 동포와 자손이 단체입국한 데 이어 이번에 60명이 2차로 단체입국을 하게 된 것이다. 나머지 185명은 개별입국한다.
- 영주귀국 사업을 진행하는 재외동포청(청장 이기철)과 대한적십자사(회장 김철수)는 이날 국제여객터미널에서 사할린동포를 따뜻하게 맞이했다.
- 휠체어를 타거나 서로 손을 잡고 밝은 표정으로 배에서 내린 동포들은 크게 숨을 한번 쉬고는 감격해하면서 재외동포청 관계자와 대한적십자사 봉사단원들의 축하인사를 받으며 행사장에 도착했다.
- 최영한 재외동포청 차장은 배를 기다렸다가 입국장에 들어가 황순남 할머니 손을 잡고 환영식에 나타났다.

- 최 차장은 환영사에서 ”하늘길이 막혀 24시간을 여객선에서 보내시며 오시는 동안 고향이 얼마나 멀게 느껴지셨을지, 또 얼마나 설레는 마음이셨을지 모르겠다“며 ”홀로 외롭다고 느끼지 않으시도록, 이제부터 조국은 언제나 여러분의 곁에 있겠다“고 위로했다.
- 이어 “국가의 책무를 다하는 우리 정부는 꽃피는 봄에 고향으로 돌아 오신 사할린동포 분들께서 고국에 잘 정착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”고 약속했다.
- 지난해 재외동포청 출범(6월5일) 이후 처음으로 치른 환영식에는 박종술 대한적십자사 사무총장, 이재영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청장 등도 자리했다.
- 환영식이 끝난 뒤 사할린동포들은 자신들이 영주귀국할 전국 거주 예정지역으로 이동했다.
- 재외동포청은 ‘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’에 따라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등으로 사할린에 이주했지만 광복 이후 고국으로 귀환하지 못한 동포와 그 동반가족의 영주귀국과 국내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.
- 영주귀국 동포들은 귀국에 필요한 운임 및 초기 정착비, 거주 및 생활 시설에 대한 운영비, 임대주택 등의 지원을 받는다.
- 앞으로 재외동포청은 보건복지부, 법무부, 대한적십자사, 한국토지주택 공사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동포들이 안정적으로 국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, ‘사할린동포 2-3세 모국방문’, ‘영주귀국 사할린동포 법률지원’ 사업 등 다양한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.

붙임 행사사진 자료 모음 1부(별첨). 끝.

담당 부서	재외동포청 아주러시아동포과	책임자	과장	정선호	032-585-3172
		담당자	주무관	이정주	032-585-3175